

고려 속절(俗節) 연구
-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을 중심으로-

천진기

(국립문화재연구소)

목 차

- | | |
|---------------------------|------------------|
| I. 서론 | 1. 9대 속절과 관리의 휴가 |
| II. 『동국이상국집』의 민속학적 이해와 접근 | 2. 『동국이상국집』의 세시시 |
| III. 고려 속절과 세시시(歲時詩) | IV. 결론 |

I. 서론

한국 민속학을 역사성과 사회성을 공유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일상생활과학(日常生活科學)이며, 민족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해석에 관여하는 객관적 비교과학(客觀的比較科學)이며, 나아가서 세계문화 속에 한문화(韓文化)의 위치를 정립하려는 인류과학(人類科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현재 민속학계의 연구동향은 특정 시대나 몇몇 주제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민속학 관련 학회활동도 너무 개별적이고 분파적이다. 민속학회, 한국민속학회, 역사민속학회, 비교민속학회, 각 지역 민속학회 등 학회 명칭만을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민속을 마치 따로 떼어내어 각기의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 각 학회의 활동영역이나 방법론은 그 명칭만큼이나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는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역사민속론적, 비교민속론적, 지역민속론적, 더 나아가 응용민속론적으로 통합적인 연구방법이나 학회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인, 한국사회의 문화를 연구하는 이른바 ‘한국학(韓國學)’의 연구자들은 고고학, 미술사, 고전문학, 사학, 민속학, 인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평소에 생각해왔다.

민중생활사(民衆生活史), 즉 민속사(民俗史)의 연구는 종래, 중앙사, 정치사건사 중심의 역사연구와 기술을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각 시기마다, 각 신분별 지역별 입장 속에서 역사를 꾸며오고 도도한 흐름을 타고 전승되어 온 각각의 민속소(民俗素)에 대한 민중생활사의 재구축이야말로 시급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필자는 다호리 유적과 신창동 유적, 고구려 벽화 고분, 신라의 토우 등 당시의 생활 문화상을 보여주는 일련의 고고학적 성과와 각 시대별 풍속 그림이나 문학작품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고고, 미술, 문학 자료들은 당시의 풍속이나 생활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시대속(時代俗)의 면면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¹⁾

이 글은 이러한 시대속 연구(時代俗 研究)의 연장선상에서 『고려사(高麗史)』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을 중심으로 고려 속절(俗節)을 살펴 보려고 한다. 특히 『동국이상국집』은 고려시대의 생활사 [속절]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서술하고 있다. 문학적 역사기록과 함께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내면적 세계의 형상화이든, 구체적 사건의 기록이든 간에, 상상력이 가미된 유추된 세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유추된 세계라고 하여 현실과 유리될 수도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실제 세계보다 더욱 진실된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사(人間史)의 한 부분의 표현이며 삶의 현장이다.²⁾

오늘날 급격하게 세시풍속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변천에 따른 시대세기(時代歲時), 유불선, 기독교 등의 종교세기(宗教歲時)³⁾, 농촌·어촌·산촌·도시 등 지역세기(地域歲時), 생산·생업주기의 차이에 따른 직업세기(職業歲時) 등이 고려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한국 세시풍속의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각 시대의 세시속(歲時俗)을 궁구함으로써, 그 시대속(時代俗)들이 전통적인 세시명절과 어떤 연관 속에 터를 잡아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줄기를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동국이상국집』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 역사학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한 검토는 전무하다. 이 글은 고전문학과, 역사학, 민속학 등의 자료를 학제적, 통합적 시각으로 『동국이상국집』이 민속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민속학적 이해와 접근

『동국이상국집』은 전집 41권과 후집 12권 총 53권으로 이규보가 평생 지은 작품을 망라한 것이다. 이 책은 아들 함(涵)이 1241년 8월에 전집(前集) 41권을, 그 해 12월에 후집(後集) 12권을 편집 간행하였고, 1251년에 칙명으로 손자 익배(益培)가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교정, 증보하여 개간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몇 차례 간행된 듯한데 실본(失本)된 것을 일본에서 입수하여 다시 간행하였다는 이익(李瀾)의 말로 보아, 오늘날 완전히 전해지는 판본을 영조시대의 복각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은 이규보의 뛰어난 시와 문 등의 문학작품이 수록된 귀중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사료로서도 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대장경각기고문(大藏經刻祈告文)’을 통해 “팔만대장경” 판각의 연혁을 알게 되고, ‘신서상정예문발미(新序祥定禮文跋尾)’에 의해 금속활자의 사용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규보는 여기서 고려시대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서술하고

1) 각 시대속의 접근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신라토우를 통해 신라속(新羅俗)’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거기서 필자는 각기 독립적으로 의미 없이 따로 떨어진 토우를 신라의 문화문법으로 다시 배열하여 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신라인의 생활 모습, 신앙과 의례, 세계관 등을 밝혀 보려고 했었다.(줄고, 「신라토우의 민속학적 연구」 『신라토우』(국립경주박물관, 1997, 146~158쪽)

2) 金慶洙, 『李奎報詩文學研究』 1986, 亞細亞文化史, 序文 ii쪽.

3) 종교세시에 대해서는 줄고, 「韓國 宗教歲時 小考」(『民俗研究』 第5輯, 199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03~118쪽)를 참조바람.

있다. 그래서 이규보의 문학 특징 가운데 ‘생활문학(生活文學)’으로서의 성격을 논하기도 한다. 여기서 생활문학은 ‘현실생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른 문학으로 소박한 인간 생활 자체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⁴⁾ 『동국이상국집』은 그가 살아간 생활의 자취가 대소사를 막론하고 작품 전체에 걸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생활문학을 몸소 실천한 이규보와 『동국이상국집』의 방대한 자료를 이해함에 있어서 민속학에서는 지금까지 부분적인 고찰에 머무르고 있고, ‘동명왕’편과 ‘노무’편 정도가 관심거리였다.

‘동명왕’편은 장편의 민족서사시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으로, 해모수와 유화가 만나는 과정으로부터 주몽의 탄생에 얽힌 신비스러운 이야기와 시련을 이기고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의 모습과 왕자 유리의 왕위계승,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임금들의 너그럽고 어린 마음과 예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희망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노무’편은 민중을 미혹시키는 무당을 경계하는 뜻에서 지은 시로서 무당의식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무속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Ⅲ. 고려 속절과 세시시(歲時詩)

1. 9대 속절과 관리의 휴가

고려의 세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려사(高麗史)』의 속절(俗節)편과 관리급가(官吏給暇)편을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사』 권 제 84 지 제38 형법 1 금형 조에 보면⁵⁾

○ 속절(俗節-풍속으로 전해오는 명절)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한식, 삼짇날(상사(上巳)-3월 3일), 단오, 중구(重九-9월 9일), 동지, 팔관(八關- 11월에 거행하던 국가적 제천), 추석

○ 근신하는 날(신일(愼日))

정초의 자일(子日)과 오일(午日), 2월 초하루날

고려시기는 연등회, 유두, 팔관회 등을 3대 명절로 삼았다는 말도 있으나 9개의 속절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곧 민속명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연등회와 팔관회는 일반 민들의 명절이라기보다 궁중이나 관에서 행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위의 속절과 함께 『고려사』 권 제84 지 제38 공식 관리급가 조⁶⁾에는 오늘날 관공서

4) 김경수, 앞의 책(1986), 218~225쪽.

5) 『高麗史』 卷 第84 志, 刑法 1 禁形條

俗節

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 秋夕

愼日

歲有子五日 二月初一日

6) 『高麗史』 卷 第84 志 第38 公式 官吏給暇條

每月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 每月入節日 一日

의 공휴일처럼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어 그 휴가 기간 차이에 따라 고려의 각 명절 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 관리의 휴가

매월 초하루날 초파일 15일, 23일 매월 절기드는 날(入節日)- 하루:(7~8일 주기)

정초(元正-정월 초하루날)-전후 7일간

입춘(立春)-하루

잠가(蠶暇) 정월 중의 자일(子日)과 오일(午日)

인일(人日) 정월 7일

상원(上元) 정월 보름날-전후하여 3일간

연등(燃燈) 2월 15일

춘사(春社:풍년을 비는 봄 제사)-하루

춘분(春分)-하루

제왕사회(諸王社會) 3월 3일

한식(寒食)-3일간

입하(立夏)-3일간

칠석(七夕)-하루

입추(立秋)-하루

중원(中元) 7월 보름날-전후하여 3일간

추석(秋夕)-하루

삼복(三伏)-3일간

추사(秋社) 사직제일(社稷祭日)

추분(秋分)-하루

수의(授衣) 9월 초하루날

중양(重陽) 9월 9일

동지(冬至)-하루

하원(下元) 10월 보름날

팔관(八關) 11월 보름날-전후하여 3일간

납향(臘享) 전후 7일간

일월식(日月蝕)-각각 하루

단오(端午) 하루

하지(夏至)- 전후 3일간

이 기록을 통해 보면 관리의 휴가는 매월 초하루, 초파일 15일, 23일, 절기 드는 날 등 매월 7~8일 주기로 돌아오는 휴가 이외 27건의 특별휴가가 있는데, 바로 이 날이 오늘날의 명절이자 공휴일에 해당된다. 이들을 기간별로 나누면 7일간 휴가가, 2건, 3일간 휴가가 7건, 1일간 휴가가 18건으로 나타난다.

元正 前後并七日 立春 一日 蠶暇 正月內 子午日 人日 正月 七日 上元 正月十五日前後并三日 燃燈 二月十五日 春社 一日 春分 一日 諸王社會 三月三日 寒食 三日 立夏 三日 七夕 一日 立秋 一日 中元 七月十五日前後并三日 秋夕 一日 三伏 三日 秋社 社稷祭日 秋分 一日 授衣 九月一日 重陽 九月九日 冬至 一日 下元 十月十五日 八關 十日十五日前後并三日 臘享 前後并七日 日月蝕 各一日 端午 一日 夏至 前後并三日

<표1> 9대 속절과 관리의 휴가

기간	명 칭	건수
7일간	정초, 납향	2건
3일간	상원(정월, 보름날), 한식, 입하, 하지, 삼복, 중원(7월 보름날), 팔관	7건
1일간	입춘, 정월 중 자일과 오일, 인일, 연등, 춘사, 춘분, 제왕사회(3월 3일), 칠석, 입추, 추석, 추사 사직제일, 추분, 수의, 중앙, 동지, 하원, 일월식, 단오	18건

이들 관리들의 휴가에는 고려의 9대 속절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관리들의 휴가 기간의 길이를 따지면 9대 속절의 중요도 즉, 크게 쇠는 정도를 알 수 있다. 7일간 쉬는 최대의 속절은 정월 초하룻날을 전후한 정초이다. 납형(蠟型)은 동지 '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로 시기적으로 정초와 겹친다. 그 다음으로 3일간 쉬는 큰 속절은 상원(정월 대보름), 한식, 팔관이다. 그 외는 모두 1일간 쉬는데 삼짱날, 단오, 중구, 동지, 추석 등이다.

9대 속절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리들의 휴가에 들어간 경우를 보면 여름철에 해당하는 입하, 하지, 삼복, 중원 등이 3일간이고, 입춘, 정월 중 자일과 오일, 인일, 연등, 춘사, 춘분, 칠석, 입추, 추사 사직제일, 추분, 수의, 하원, 일월식 등은 1일간이다.

여하튼 고려의 이름 있는 절기와 날자는 27건이다.

2. 『동국이상국집』의 세시시(歲時詩)⁷⁾

이규보는 절기에 관해 많은 시편(詩篇) 즉, 설날, 정월 대보름, 인일, 입춘, 삼월 삼일, 한식, 중앙절(重陽節), 칠석(七夕), 단오(端午), 팔관 등 고려의 명절을 많이 읊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의 명절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속지보다도 구체적으로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들 절기, 속절에 관한 민속지에 가까운 시편들을 모은다면 각 명절날의 구체적인 모습과 풍속을 재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⁸⁾

(1) 설날

- ① 정월 원단에 길에서 중을 만나 희롱삼아 시를 지어 주다 正旦路上逢山人
나는 속세(俗世)에서 설을 만났으니 我於世上遇王春
(『東國李相國集』 제13권-『국역동국이상국집』 2권 209쪽)

- ② 병신년 원일 丙申元日
하객들 분분한 뜻을 모를레라 賀客紛紛意莫知
어려서는 날뛰면서 설맞이를 기뻐했는데 少年踴躍喜迎正
늙고보니 쓸쓸하여 감흥이 적어졌네 老境肅然小興情
손들이 문을 가득 메워 인사받기 거북하고 賓客填門慵受謁
자리에 가득한 자손들 이름 묻기도 귀찮네 兒孫滿座懶諮名
(『東國李相國集』 제18권-『국역동국이상국집』 3권 115쪽)

7) 김경수는 이규보의 시세계(詩世界)를 벼슬과 관련된 사환문(仕宦門), 주고 받는 내왕문(來往文), 본인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에 관한 당신문(當身門)으로 크게 나누었고, 당신문을 다시 여러 하부 분류로 나누었는데 그 중 명절과 절기에 관한 시를 세시시(歲時詩)로 분류했다(金慶洙, 앞의 책(1986), 154~160쪽). 이 글에서는 고려의 9대 속절과 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읊은 시를 세시시 대신에 세시시(歲時詩)라고 하겠다.

8) 이 글에서 활용한 자료는 민족문화추진회의 『국역 동국이상국집』(I~VII)과 (주)누리미디어의 『고려사』 CD-ROM 타이틀의 것이다.

- ③ 설날 조회에서 물러나와 소감을 읊다
 늙은 몸이 아직도 백관들 뒤에 있으면서
 청삼(靑衫)과 목홀(木笏)로 조례에 참석하네
 元日朝會退來有感
 自首猶居百寮尾
 藍衫木板趁朝參
- 썩늘한 안장에 등자를 밟고 급히 채찍질하니
 쌍 대궐 바라보매 아직도 묘연하구나
 (『東國李相國集』 후제1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142쪽)
 冷鞍敲鑿着鞭忙
 雙闕相望尙杳茫
- ④ 설날 희롱삼아 짓다
 (『東國李相國集』 후제1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143쪽)
 元日戲作
- ⑤ 무술년 설날에
 설날에 세배받는 일 모두 덜어버리니
 다만 노쇠한 몸 편하려 한 것 뿐이네
 문 밖은 조용하여 참새 그믐 칠 만한데⁹⁾
 어찌하여 손들이 와서 서성대는가
 戊戌元日
 正朝拜賀禮皆巋
 只爲殘身自要安
 門外雀羅方可設
 如何賓客立盤桓
- 잠을 즐겨 그믐밤도 모른 채 보내고
 해 높도록 누워서 길게 읊조리네
 이제야 한가하게 시도 읊게 되었으니
 눈과 바람이 추운 날에 조회하는 일 면했네
 이날 눈이 내렸다.
 嗜睡輕拋守歲宵
 日高猶臥放長謠
 如今時得閑中詠
 風雲天寒免會朝
 이날 눈이 내렸다.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191쪽)
- ⑥ 설날에 길을 바라보며
 벼슬을 사은하고 새해 하례하는 사람들은
 종일토록 바빠 달려 온 길이 먼지일세
 正日望路
 謝官賀歲兩般人
 終日奔馳一路塵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191쪽)
- ⑦ 기해년 정단에神明단을 마시고 희롱삼아 짓다
 닭도 울기 전에 이불 쓰고 앉아서
 신단¹⁰⁾을 먹기 위해 술 한 잔 마시네
 己亥正旦飲神明丹戲作
 擁衲閑坐未鷄鳴
 爲服神丹吸一壺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동국이상국집』 6권 47쪽)
- ⑧ 신축년 정월 초하루에
 화산의 열번째 맞는 봄으로
 신축년 정월초하루일세
 사람들은 응당 신정을 축하하느라
 저마다 모여 마을 문을 메웠을 텐데
 辛丑正旦
 花山第十春
 辛丑搃月旦
 人應賀新正
 奔集填閭閉

9) 참새 그믐 칠 만한데: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하에 삶을 표현하는 말. 『史記 ?鄭傳』에 “채공(載公)이 정위(廷尉)로 있을 때엔 손님들이 문에 가득하더니 퇴직한 후에는 문밖에 새 잡는 그믐을 치게 되었다.” 하였다(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10) 신단(神丹):신선이 된다는 영약이다. 『南史 隱逸陶弘景傳』에 “홍경이 신부(神符)의 비결(秘訣)을 얻어 신단을 만들 수 있었으나 약물(藥物)이 없음을 고심하던 차에, 입금이 황금(黃金), 주사(朱砂), 증청(曾靑), 옹황(雄黃) 등의 자료를 내려 주었으므로 마침내 비단(飛丹)을 만들었는데, 빛같이 눈처럼 희었고 그것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졌다.”하였다(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세월이 들고 돌아 다시 시작되는 건
천지가 개벽한 후로 그러하였네

歲月周復始
部判已來慣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동국이상국집』 6권 47쪽)

설날의 풍경이나 설을 맞이하는 작자의 심정을 읊은 시는 모두 8개이다. 이들 설날 관련 시를 통해 설날의 명칭, 풍속 등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시에 보이는 설날의 명칭은 정단(正旦), 왕춘(王春), 정일(正日), 영정(迎正), 원단(元旦), 정조(正朝), 월단(月旦), 신정(新正), 원일(元日) 등이다. 정월인 정(正)자, 근본이고 으뜸인 원(元)자, 아침인 단(旦)자 등이 많이 보이며, 이들 용어들은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 자료는 그믐날의 수세, 설맞이 풍속(迎正), 세배 [拜賀禮, 賀歲], 신명단 마시는 풍속, 설날 조회 등 그 당시의 설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료②의 설날 하객들의 분분한 모습, 어려서 날뛰면서 설맞이하는 기쁨, 세배하러 온 손님들과 자식들의 이야기, 자료⑤의 세배하러 손님들이 와서 서성대는 일, 자료⑥⑧의 설날에 새해를 하례하는 사람들이 바비 오가는 거리의 모습 등은 설빔을 입고,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문안드리고 덕담을 주고 받는 오늘날의 설날 모습과도 흡사하다.

자료⑦의 새해 이른 아침 술과 함께 신선이 된다는 신명단 먹는 풍속도 정초에 행하는 점복(占卜), 기복(祈福), 벽사(酸邪), 기풍(祈豐) 등 일련의 상호 연관적인 관념들을 반영하는 풍속으로 볼 수 있다.

궁중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 정조에 백관들이 모여 축하의식을 열고 신년을 축하했다. 자료③의 “늙은 몸이 아직도 백관들 뒤에 있으면서 청삼(靑衫)과 목홀(木笏)로 조례에 참석하네”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청삼과 목홀을 하고 정조 축하의식에 참여한 후 물러나서 본인의 소감을 읊고 있다. 설날 조회 풍속은 『高麗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매년 정월 초하루 정조 축하의식을 열고 신년을 축하했다. 정조 축하의례를 금했다는 기록이 많이 보이지만 대체적인 설날 조회 모습은 이날 궁중에서 왕이 신년축하를 받았고, 경령궁에 참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규보가 생존했던 1168~1241년 사이의 설날 조회에 관한 『고려사』 기록을 한 두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종 무자 22년(1168) 봄 정월 초하루 갑자일에 왕이 관복궁에서 신년 축하를 받고 시를 지어 유신(儒臣)들에게 보였다.
- 의종 기축 23년(1169) 봄 정월 초하루 무오일에 왕이 정조 축하를 받고 신하들의 정조 축하 표문을 대작하여 재추(宰樞), 근시(近侍)와 국학(國學) 문신(文臣)들에게 돌려 보였다. 이에 과실을 주고 행두(行頭) 직 한림원(直翰林院) 전치유(田致儒)를 내시(內侍)에 배속시켰다. 대학관(大學官)이 또 육관(六管) 학생들과 과거에 급제된 사람들과 함께 각각 왕에게 표문을 올려 칭송하니 왕이 성대환주연을 베풀어 주었다.
- 의종 경인 24년(1170) 봄 정월 초하루 임자일에 왕이 대관전(大觀殿)에서 정조 축하를 받고 신하들의 축하 표문을 친히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돌려 보였다.
- 명종 임진 2년(1172) 봄 정월 초하루 경오일에 왕이 경령전(景靈殿)에 참배하였다.

이들 이외 ‘정단하장(正旦賀狀)¹¹⁾, 정월 초하루날에 천황에 올리는 초례문 2건¹²⁾’ 등 설날과 관련된 자료가 더 있다.

(2) 입춘

① 어전 춘첩자

서운은 채장 위에 떠오르고
수주는 금 술잔에 넘치네
나라를 교화함에 봄이 무슨 힘이랴
언제나 봄별은 스스로 길어
황은이 발생 조화와 더불어 가뜩 펼쳐져
곱고 상서로운 하늘에 동풍을 재촉하네
그 누가 태평함이 제력(帝力)인 줄 알리
노래하고 첫대 불며 새해를 맞이하네

(『東國李相國集』 제17권-『동국이상국집』 3권 50쪽)

② 태후전 춘첩자

발생시키는 것은 비록 임금 힘이나
양육하는 것은 본래 태후(太后)의 덕이로다
문모의 인품처럼 은화하여
강한 데다가 기후의 따뜻함을 더하였네

버들은 봄빛 맞아 놀라 눈뜨고
새는 화풍에 의지하여 마음껏 목청 돋구네
수 누리는 동조의 경사를 표하고자
만년 천자가 손수 잔 올리네

(『東國李相國集』 제17권-『동국이상국집』 3권 58쪽)

③ 어전의 춘첩자

성일은 따뜻함을 재촉하고
황풍은 봄을 돕는구나
절로 우는 새 소리도
또한 태평스런 소리일세

궁류가 처음 누르니 금으로 실을 끈 듯 하고
어구는 살짝 푸르러 옥같은 물결이 출렁거리네
동군은 유독 동방 나라 사랑하여
먼저 화풍을 보내어 봄을 빚었네

11) 『동국이상국집』 제32권-『국역동국이상국집』 4권 186~192쪽

12) 『동국이상국집』 제38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44쪽

『동국이상국집』 제38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53쪽

(『東國李相國集』 제17권-『동국이상국집』 3권 72쪽)

④ 사문의 춘첩자

눈 녹으니 연하는 기와에 일고
얼음 녹으니 물은 못에 넘치네
도문의 다섯 그루 버들이
저마다 또한 누렇게 흔들리네

차갑고 따스함이 하룻밤 새 바뀌어
새벽녘에 용융한 기운이 하늘에 빠져 있네
초주 한 잔에 뺨 위에 이는 노을
봄은 소년처럼 붉어 오는가보다

(『東國李相國集』 제17권-『동국이상국집』 3권 73쪽)

⑤ 계사년 어전의 춘첩자

(『東國李相國集』 제18권-『동국이상국집』 3권 105쪽)

⑥ 입춘에 얼음을 저장하면서 사한(司寒)에 드리는 제사의 축문

저 굳은 얼음을 떠 와서 장차 능실(凌室)에 저장하려고, 이 행료(行潦)의 물을 떠
올려 삼가 영관(靈關)에 아뢰입니다. 부디 음덕의 도움으로 화협한 기운을 이끌어
펴옵소서

(『東國李相國集』 제40권-『동국이상국집』 5권 94쪽)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서 계절의 변화 즉 봄을 알려 주어 농사의 적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날이다. 춘첩자는 입춘에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는 주련(柱聯)을 말한다. 이는 본디 제술관(製述官)에서 명하여 하례(賀禮)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한 다음 종이에 써서 붙인 것이다.

위의 자료들에서는 어전, 태후전, 사문 등에 춘첩자를 써 붙인 것을 보고 읊은 것이다. 이들 내용은 지금도 입춘의 춘첩자로서 벽이나 기둥에 써붙이는 내용과 동일하다. 자료⑥은 겨울의 마지막 봄의 길목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제사축문이다.

입춘과 춘첩자에 대한 풍속은 {高麗史}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성종 무자 7년(988) 봄 2월 입자일에 좌보궐(左補闕) 겸 지기거주(知起居注) 이양(李陽)이 왕에게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청하였다.

“첫째로 옛날 명철한 임금의 도를 받들어 삼가 농사짓는 계절을 가르쳐 줌으로써 임금은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백성은 농사 시절의 이르고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자급자족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월령(月令)에 의하면 입춘 전에 토우(土牛)를 내어 농사철의 이르고 늦은 것을 보였다고 하였으니 이 옛날 행사를 지금 실시하기를 청합니다.

○ 의종 임오 16년(1162) 신묘일에 왕이 인지재(仁智齋)에 가서 친히 지은 춘첩자(春帖子-입춘에 써 붙이던 글)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날이 화창하면 경치가 좋으려니(蕩蕩春光好) 봄을 맞은 만물은 기쁨도 새로 워라(欣欣物意新) 내 장차 착한 일을 하려 하는데(將修仁知德) 이제 영원히 봄을 만 났도다(今得萬年春)-계속하여-꿈에 분명히 들었거니 여기가 정녕 좋은 곳임을(夢裏 明聞眞吉地) 부소산 밑에는 별 신선이 있다네(扶蘇山下別神仙). 새봄을 맞아 경사 로운 이 아침에(迎新納慶今朝日) 온갖 행복과 함께 상서로운 기운 서리었도다(萬福 攸 同端氣運),”

○ 명종 계사 3년(1173) 무인일에 백관이 입춘절(立春節)을 축하하니 왕이 그들에 게 춘번자(春幡子)를 주었는바 이것은 모두 전례에 의한 행사였다.

문관들에게 상서로움을 맞는 신년의 시를 지어 올리게 한 중에서 연잎이나 연꽃 무늬 를 그린 종이에 써 대궐 안의 기둥이나 문설주에 붙이게 하던 것이다. 조선조로 오면 서 대궐, 사대부집, 일반민가 및 상점에서 모두 춘첩을 붙였다.

(3) 상해일(上亥日)과 인일(人日)

① 나는 또 특별히 시 한수를 지어 삼해주(三亥酒)를 가져다 준 데 사례하다

쓸쓸한 집 적막하여 참새를 잡을 만한데¹³⁾
 어찌 군후의 방문 생각이나 했으랴
 다시 한 병의 술 가져오니 정이 두터운데
 더구나 삼해주 맛 또한 뛰어났네

(『東國李相國集』 후제6권-『국역동국이상국집』 6권 75쪽)

② 인일(人日)에 은승(銀勝)을 받고 3수

머리 장식 화려하여 늙은 눈이 놀라고
 임금께서 내려준 것 절해 받음에 봄기운 더하는 듯
 머리에 꽂으매 어찌 그리 무거운가
 임금의 은혜 때문이지 은 때문은 아닐세

날도 인일이요 머리 장식도 사람 위한 것이데
 은 빛이 흰 머리와 빛을 다투네
 올해도 무심히 예에 따라 받고 보니
 성은이 물러나 한가로운 몸에 까지 미친 걸세
 서왕모(西王母)가 남긴 의식 아직도 남아 있어
 화승을 만들어 서로 서로 선물하네¹⁴⁾
 이 늙은이야 풍속 따름을 기필함은 아니지만
 임금의 은택이라 잠시 머리에 꽂아보네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동국이상국집』 5권 193쪽)

13) 쓸쓸한...잡을 만한데: 집이 가난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고 오직 참새만이 들끓므로 그물을 치고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14) 서왕모가...선물하네:중국에서 정월 7일 인일(人日)에 예부터 머리 장식하는 화승(花勝)을 만들어 서로 선물하 는 풍속이 있었다. 『荊楚歲時記』에 “이것은 전설적인 선녀 서왕모(西王母)가 머리에 꽂고 있던 대승(戴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장수(長壽)와 행복을 비는 뜻이 담겨있다.” 하였다(『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자료①의 삼해주는 음력 정월 상해일(上亥日)에 찹쌀가루로 죽을 쑤어 누룩과 밀가루로 반죽한 다음 독에 넣고, 다시 중해일(中亥日)에 찹쌀가루와 멥쌀가루를 찌서 독에 넣고, 하해일(下亥日) 또 흰쌀을 찌서 독에 넣어 빚은 술인데 춘주(春酒)라고 한다. 고려 시기에는 일상음식과 함께 명절날에 특별히 만들어 먹는 철 음식도 있었다. 정초의 상해일의 삼해주 이외에도 첫 사일(뱀날)에는 찰밥, 쭉떡, 삼진날에는 화전, 단오날에는 수리취떡, 창포술, 유두에는 회음, 중구에는 국화전, 국화술, 동지에는 팔죽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¹⁵⁾

자료②의 인일은 정월 초이레이다. 1일은 닭, 2일은 개, 3일은 돼지, 4일은 양, 5일은 소, 6일은 말, 7일은 사람의 날이라 한다. 사람을 제외한 위의 여섯 동물은 12지 중에서는 다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이다. 새해를 맞아서 1년내 농사가 잘되고 가축이 번식하기를 염원하고 마지막 7일은 그 총괄자인 사람의 날로 정해서 중대한 뜻을 부여하고 행사도 하였다.

중국에서 정월 7일 인일(人日)에 예로부터 머리 장식하는 화승(花勝)을 만들어 서로 선물하는 풍속이 있었다. 『荊楚歲時記』에 “이것은 전설적인 선녀 서왕모(西王母)가 머리에 꽂고 있던 대승(戴勝)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장수(長壽)와 행복을 비는 뜻이 담겨 있다”하였다. 고려에서 인일에 왕이 은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 신하에게 선물하여 무병 장수를 빌었다는 사실을 자료②를 통해 알 수 있다.

(4) 정월 대보름

① 기사년 등석에 한림원에서 지어 올린다.

문기장자시

구문에 임금님 납시니 벽제(酸除)소리 우레와 같고
 궁중의 화사한 연회 밤을 정해 열었어라
 은촛불 그림자 속에 평깃발 도열했고
 옥통소 부는 가운데 금술잔 보내왔구나
 만세 삼창하니 삼신산 솟아 올랐고
 천년 만에 한 번 익는 선도가 실려 왔네
 시신에게 마음대로 즐기도록 허락해 주어
 어사화 가득 꽂고 취하여 부축 받아 돌아왔노라

상서로운 아지랑이 감돌고 자신전 드높은데
 보좌의 중앙에 임금님 납시었네
 동부에서 노래 부르며 옥색 두드렸고
 교방에서 기상 선발하여 선도에 취했어라
 구층의 향로에는 용뇌 향기 피웠고
 사방을 비추는 등불에는 봉황기름을 사용했네
 서왕모도 찾아와서 천세수 올리니
 제자들을 불러 운오를 치게 하였네

15) 『조선의 민족전통 1』 식생활 풍속편,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5쪽

등롱시 4수

오색 구름 가운데 옥황에게 절하니
별과 달은 머리 위에서 깜박이네
도성 사람들은 천문의 찬란함은 모르고
은등의 깜박거리는 빛인가 의심하누나

비단 등롱은 물결 속에 진주가 비친 듯 하고
황금 궁전에는 밤이 깊어 밝은 달이 걸렸구나
만호 장안(萬戶長安)에 고루 비쳐 불야성 이루었으니
계인¹⁶⁾이 물시계를 잘못 계산할까 염려되네

붉고 푸른 비단 등롱 연꽃처럼 아름다운데
용의 기름 불꽃을 토해 붉은 연기 휘도네
대보름을 인하여 불꽃이 길이 연달아
천추 만세의 장수 술잔을 비취주네
황금 등잔 불꽃 토해 홍사 초롱 투명(透明)하니
동쪽에 해 돋아 새벽 늘 무리졌네
천하가 한 집 되고 임금님 인자하니
상서의 빛에 일백 가지 꽃을 보리

(『東國李相國集』 제13권-『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211~213쪽)

② 상원일 등석에 문기장자와 등롱의 시를 한림원에서 지어올리다.

문기장자(文機障子)

밤에 칙령 내려 아홉 금문 활짝 열고
옥통소 소리 가운데 요대에서 연희 베풀었네
일백가지 등불 비단 장막에 휘황하고
만세산 그림자 술잔에 비쳐드네
어여쁜 기녀는 화문석에서 간드러지게 춤 추고
날랜 광대들 줄 위에서 온갖 재롱 부리네
태평시절 한가한 틈에 함께 즐길이 마땅하여
모든 관원 밤을 새워 놀도록 허락하셨네

등롱시(燈籠詩)

휘황한 불꽃은 꽃송이 가지런히 핀 듯하고
열고 가벼운 비단은 물같이 맑구나
일만 사람을 한 그림자로 비추었으니
참으로 대왕등임을 비로소 알았네

③ 등석

문기장자(文機障子)를 보고 짓다

등롱(燈籠)을 보고 짓다

(『東國李相國集』 제14권-『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254쪽)

16) 계인 : 春官에 소속된 官名이니 제삿날 밤에는 새벽을 알려 百官을 일어나게 한다. 『周禮 春官』(『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④ 연등(燃燈)날 저녁에 대간(大諫) 유충기(劉沖祺)와 함께 시연(侍宴)에 가서 지음
 燈夕與 劉大諫庶祺聯行待宴有作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196쪽)

⑤ 무술년 정월 십오일 큰 눈 내리다
 어찌하여 겨울엔 눈이 적더니
 봄 되자 한 자도 넘게 내렸네
 보리 싹 적시기는 늦은 듯 하나
 없는 것 보단 한결 낫네
 올해 농사 어떠한가 징험하려고
 이 일을 분명하게 써두는 걸세
 밭 이랑에 푸른 빛 보게 된다면
 어찌 납향(臘享) 전의 눈만을 기대할 손가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195쪽)

고려에는 대보름 명절이 9개 민속명절의 하나로서 널리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특히 대보름은 관리들의 휴가를 3일간 쉬게 하여 고려의 큰 명절임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는 연등회를 정월 보름에 크게 쇠었다. 연등회 행사의 내용은 등불을 수많이 걸어 놓고 연회를 베풀며 가무기악으로 즐기면서 왕이 봉은사에 있는 태조의 화상에 제사를 하였다. 연등회는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하였고 그 영향 밑에 민간에서는 등불놀이를 하였다.

고려에서 9대 속절에는 넣지 않으나 크게 맞은 명절의 하나는 연등회였다. 고려 태조 『訓要十條』의 여섯째 조항에는 연등과 팔관에 관한 내용이 있다.¹⁷⁾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여서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고려에서는 이 연등회를 정월 보름에 크게 쇠었다. 연등회 행사의 내용은 등불을 수많이 걸어놓고 연회를 베풀며 가무기악으로 즐기면서 왕이 봉은사에 있는 태조의 화상에 제사를 하는 것이었다. 연등회는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하였고 그 영향 밑에 민간에서는 등불놀이를 하였다. 고려가 불교를 중요한 통치사상으로 삼고 있었고 또 태조가 부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연등이라고 하였으므로 연등회 행사를 불교행사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사내용을 놓고 보면 순수한 불교행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17) 『高麗史』卷二 世家 太祖 二十六年 四月 條
 “六曰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曰加減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이날 국왕이 봉은사에 간 것은 염불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시조인 태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연등회 날짜를 정한 것도 불교와 인연이 적다. 고려초기에는 정월보름인 대보름날을 연등회 날로 했으며 983년에 왕이 된 성종은 연등회가 번잡하다 하여 폐지 하였으나 1010년에 2월 보름을 연등회 날로 정하고 다시 쇠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는 정월 보름, 2월 보름 등으로 날짜를 바꾸면서 연등회를 지냈다.¹⁸⁾

연등회를 정월, 2월로 날짜를 바꾸어가면서 진행한 것이나 이날 태조에게 제사를 지낸 것 등을 보면 이 행사가 불교의 용어를 썼으나 새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권농제’와 결합된 것으로 짐작된다.¹⁹⁾

이규보가 생존했던 시기(1168~1241)에 『고려사』에 보면 정월, 이월, 혹은 상사(喪事)가 있어서 연기해가면서 까지 연등회를 계속 열었고 이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 의종 무자 22년(1168) 정월 정축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 명종 임진 2년 (1172) 2월 계축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 명종 신축 11년(1181) 정월 신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이튿날 대회에는 왕이 장전(帳殿)에 나가서 음악을 구경하고 밤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해가 기울 때까지 파하지 않았다. 이때에 장군들이 모두 술에 취해서 북을 치며 떠들었고 견룡(牽龍)들은 서로 자기 자리를 더 높이기 경쟁을 해서 마감에는 왕이 앉아있는 장전의 부계(浮階)와 가지런하게 되어 군신간의 높고 낮은 차등이 없어졌으며 왕도 역시 과하게 취해서 일어나 춤을 추려고 하다가 좌승전 문장필(文章弼)이 간하므로 그만두었다.
- 명종 갑신 14년(1184) 여름 4월 임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으며 이튿날 대회에는 연경궁(延慶宮)에서 풍류를 구경하였다. 태후의 상사와 관련하여 임시로 상원(上元)의 연등행사를 정지하고 이날에 이르러 이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꽃을 꽂는 등 여러 가지 놀음만은 금지하였다.

『고려사』의 기술처럼 매년 행한 정월 대보름 연등행사를 이규보는 시로 읊고 있다. 자료 ①②③④의 연등회 관련 시들은 문학작품이라기 보다는 대보름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사실 기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보름의 풍속을 밝힐 수 있다.

정월 대보름에 금오(金吾)에게 분부하여 밤에 통행금지를 풀게 하고 전후(前後) 각 1일에 걸쳐 관등(觀燈)놀이를 하게 하였다. 사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바깥에다 등불을 켜놓고 밤을 밝히는 등석, 대나무 또는 나무나 쇠 같은 것의 살로 등근 바구니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비단 또는 종이를 씌워 그 속에 등잔을 넣은 등롱 등이 매우 사실적으로 정월 대보름 연등행사를 민속지(民俗誌)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풍속은 ‘이날은 집안에 등잔불을 켜놓고 밤을 세운다’라는 동국세시기 대보름날 기술처럼 조선으로 이어진다.

정월 대보름은 한마디로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관념의 원점(原點)이다. 자료

18) 『高麗史』 卷六十九 志二十三卷 禮十一 嘉禮雜儀 上元燃燈會儀 條

19)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9쪽

⑤에서 정월대보름 큰 눈이 내리는 것을 “올해 농사 어떠한가 징험하려고”라는 표현처럼 정월대보름의 날씨점을 통해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사점이다.

『동국이상국집』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정월대보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도 고려에서 그 시원을 두고 있다.

차전놀이는 외바퀴 수레나 동체에 사람을 태우고 수레를 밀거나 동체를 눌러 내리 앉히는 것을 겨루는 놀이다. 차전의 시원은 10세기 전반기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싸움과 관련이 있다.²⁰⁾ 고려 태조 왕건은 930년 고창군(안동군) 병산에서 후백제왕 견훤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때 고을사람 김선평과 권행, 장길 등은 여러 개의 수레를 만들어 타고 싸워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했다고 한다. 이 병산싸움이 있은 후 이 지방 사람들은 용감한 세 사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새해를 맞으면서 동채 싸움과 같은 놀이를 만들어 즐기기 시작한데서 차전놀이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차전놀이와 함께 놋다리밟기의 연원도 고려조에 있다. 보름달 아래 아녀자들이 한 줄로 허리를 굽혀 ‘사람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사람(공주)을 건너게 하면서 노는 놋다리밟기는 고려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지방으로 몽진한 공민왕과 관련이 있다.

웃놀이는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색의 시에서 웃놀이와 웃말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 ²¹⁾ “이웃 늙은이 박상서, 박중량, 김석...이 웃놀이를 하는데 옆에서 이를 본다”라는 제목으로 된 시에 ‘단단 4. 7방원국’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웃놀이 장면을 구수하게 읊은 내용도 있다. 이것은 말판의 점인 방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그려진 28개 동그라미 ‘점’을 말한 것으로 이 시대의 웃놀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29발으로 된 웃말판도 있었던 것이다. ²²⁾

(5) 2월 중농절과 꽃샘바람

① 중농절(仲農節)에 제사 축문

신농씨(神農氏)에게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어서 일찍 밭갈고 김매는 피를 내신지라, 빈조(蘋藻)를 캐어 광주리에 담아서 엄숙히 정성의 향사를 받드오니, 오직 이해의 풍년은 기록하신 신(神)만 믿겠습니다.

후직(后稷)에게

보상(輔相)의 도가 있어 처음 곡식을 파종해 백성들을 먹이신지라, 신(神)에게 이 명수(明水)잔을 올려 청결한 제사를 받드오니, 부디 뵈는 듯한 정성을 흠향하사 빨리 저희들에게 주실 상서를 더하고서

(『東國李相國集』 제40권 - 『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95쪽)

② 꽃샘바람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 이것을 꽃샘 바람이라 했다.

(『東國李相國集』 제14권 - 『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255쪽)

20)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敬順王 四年 條

21) 『穆稷集』 卷六, 卷十三, 卷35

22)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편, 135쪽

자료①은 음력 2월 중농절의 제문으로 농사의 신들에게 고하는 것이다. 음력 2월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때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2월 초하루 풍속은 머슴 날로 농사가 시작되는 날로 친다.

자료②는 봄에 부는 꽃샘바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2월초에 내려왔다가 중순에 올라간다는 풍신(風神) 성격의 2월 영등할머니 신앙과 관계가 있다. 각 민속조사보고서에도 날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월 말 3월초의 꽃필 무렵의 이 바람을 꽃샘바람이라 한다. 어쨌든 2월은 영등달로 바람이 많은 달이다.

(6) 삼월 삼진날과 한식

① 삼월 삼일 무료하여서 짓다

사람들은 이날을 명절이라 하는데
벽에 기대어 무료하게 수염만 비비네
상기 한 잔 술로 타는 목 못 적셨으니
난정의 성대한 모임 따를 수 있겠는가

(『東國李相國集』 후제5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55쪽)

음력 3월 3일 삼진날은 들놀이를 하면서 꽃지짐을 지져 먹는 화전놀이를 하는 날이었다. 이날 기록들에서는 ‘상사(上巳), 답청절(踏靑節)’로 전하며 민간에서는 ‘삼진날’이라고 하였고, 화전놀이를 ‘꽃다림’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에는 삼월 삼진날을 명절로 여기고 관리들에게 휴가도 주고 속절제도 지낸다. 속절제는 민간 명절때마다 조상의 명복을 빌면서 지내던 제사였다. 속절제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만 하여도 설, 매달 초하루 보름,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진날, 오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칠석, 팔월 추석, 구월 중구, 동지 등 민간 명절을 맞을 때마다 사당에서 지냈다. 1년에 속절제만 하여도 서른 한차례나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²³⁾ 속절제가 다른 제사와 차이 나는 것은 해당하는 명절에 먹는 특식을 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② 한식일(寒食日) 자추(子推)의 고사에 감탄하여 짓다.

못벌레 구름과 비에 은택을 받을 때
외로운 뱀 한 마리 함께 다투지 않았었지
내려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숯불 속에서 삶기게 되었구나
면산 마루까지 타고른 불은
뛰어난 인재 그만 태워죽였다
왜 사나운 불길 널리 놓아서
전하는 이름까지 태우지 않고
드디어 후세 사람들에게
이름 듣고 마음 아파게 하였을까
해마다 한식일이 되면

23) 『조선의 민속전통 3』 주택과 가족생활풍속 편,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94쪽

만옥에 솟는 연기 보이지 않네
근륜산 옥과 돌이 모두 탈 때
한 굽이 맑은 강물 미치지 못했나

(『東國李相國集』 제1권 - 『국역 동국이상국집』 1권 82쪽)

③ 한식날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다

백오 좋은 시절 사람은 오지 않고
추천 그림자 밖으로 석양이 돌아 온다
행당과 맥락²⁴⁾ 모두 한만한 일
이화나 마주하여 한 잔 마시자

(『東國李相國集』 제3권 - 『국역 동국이상국집』 1권, 153쪽)

④ 한식

갈비뼈 붙은 임금 용처럼 오르고
해골 불태운 선비 뱀처럼 죽었다.²⁵⁾
찬밥으로 그 혼 위로한들
구천에서 무슨 이로우미 있으랴

(『東國李相國集』 제3권- 『국역 동국이상국집』 1권, 167쪽)

⑤ 한식날 바람만 불고 비는 내리지 않았다.

(『東國李相國集』 후제3권- 『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203쪽)

불에 타죽은 충신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더운밥을 삼간다는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고려의 9대 숙절 가운데도 관리의 휴가를 3일간이 주는 큰 명절이다.

중국 진(晉)나라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간신에게 몰려서 면산(綿山)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진 문공(文公)이 개자추의 충성을 알고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도리 없이 면산에 불을 놓았으나 개자추는 나오지 않고 불에 타서 죽고 말았다는 한식에 관한 설명 설화가 자료②③④⑤의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서 3일씩이나 휴가를 주는데 이 날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 다만 당(唐)은 한식 성묘를 위해서 관리에게 휴가를 주었고, 한국도 그러한 풍속이 신라때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것이라는 논의²⁶⁾와 궁중 풍속을 살필 수 있는 『高麗史』 한식관련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선종 을축 2년(1085) 3월 병신일에 왕이 자기 아버지인 문종의 반혼당(返魂堂)에 가서 한식(寒食)제사와 어울러 상사제(上巳祭)를 거행하려고 하니 해당 관청에서 왕이 서서 올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행사를 난처하게 여겼다. 왕이 말하기를 “예절은 응당 적당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디어 간편한 차림으로 반

24) 행당과 맥락:당나라 때 음식의 한가지

25) 갈비뼈...죽었다:갈비뼈가 붙은 임금은 진 문공(晉文公)이고, 타죽은 선비는 개자추(介子推)이다. 진 문공이 개자추 등과 망명했다가 돌아와 왕이 된 후에 개자추에게만 상을 내리지 않자, 용사지가(龍蛇之歌)를 지어 용은 문공에, 뱀은 자신에 비유하여 부르며 면산(綿山)에 숨었다. 문공이 뒤에 깨닫고 불렀으나 오지 않자 산에 불을 질러 나오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타죽었으므로 해마다 그날이면 찬밥을 먹으며 애도하였다[『국역 동국이상국집』의 역주인].

26) 崔南善, 「寒食」 『朝鮮常識』, 1953, 25쪽.

혼당에 갔다.

- 태묘(太廟-임금의 조상을 제 지내는 사당)에 정상적으로 제사지내는 날로서는 한식(寒食)과 납일(臘日)인데 납향(臘享-동지 '冬至' 뒤의 셋째 술일 '戌日'에 하는 제사)에는 생선도 곁해 드린다.

궁중에서 임금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사당인 태묘에서 정상적으로 제사지내는 날이었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상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어쨌든 고려의 한식날은 오늘날의 풍속처럼 무덤에 떡을 입히거나, 사초를 하면서 성묘를 하기가 제일 알맞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7) 4월 초파일

- ① 등석(燈夕)에 대궐에 들어가 느낌이 있기에 2수
 양부의 풍악 소리 맑은 옥을 바수는 듯
 구문에 켜 놓은 등불 별처럼 찬란하다
 못난선비 광대들만 못한데도
 붉은 관복 입은 채로 대궐 뜰에 들어간다

대궐에서 오늘 밤 시신 모아 잔치 벌여
 듬뿍 내려주신 술 취기가 몸에 돈다
 아미반의 꽃 꺾은 손들도
 반드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아닐레라

(『東國李相國集』 제10권-『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125쪽)

- ② 동년(同年)인 시랑(侍郎) 유 승단(兪升旦)이 처음으로 등석연(燈夕宴)에 시종(侍從) 하므로 하례함

아미반 속 많은 어진이
 천계에 오르니 허리가 모두 붉도다
 그대 처음으로 새 정대 갖추고
 궁중 등석연에 시종하니 그를 기뻐하노라
 이날 저녁 관등놀이 참으로 번화하여
 강안전 아래 구경꾼들 배 짜놓은 듯 뻑뻑하네
 생소 소리 무르익어 천수의 찬 올리니
 한 가닥 홍조가 용안(龍顏)에 어리도다
 손수 술 따라 시신에게 주며
 한 말씀만 내리셔도 감격하거늘
 하물며 그대를 친구처럼 대접함이라
 안부까지 물으니 그 감격 백 배나 더하리라
 금상(今上)과 옛 친분이 있다.
 멀리서 짐작하노니 그대 어전에 엮드려
 두 줄기 감격의 눈물 술잔 속에 떨어뜨리고

선화 가득 꽃고 취한 몸 부축해 돌아올 제
길가는 사람들은 손으로 가리키며 신선이라 하리
슬프다 오랫동안 나는 배사의 헛된 생각²⁷⁾때문에

나는 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뒤따라가 함께 시종하지 못했네

(『東國李相國集』 제16권-『국역 동국이상국집』 3권 25쪽)

등석연은 음력 4월 초파일에 ‘등석(燈夕)이라 하여 등을 달고 등대를 세우고, 밤에 불을 켜서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잔치이다. 관등(觀燈)놀이와 같다.

궁궐 안에 등불을 별처럼 켜놓은 등석연의 모습은 자료①②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등석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정까지도 적나라하게 읊고 있다. 4월 초파일은 고려 때부터 명절로 맞았으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불교를 억제하게 되면서 민들은 그것을 불교와 관련이 없는 명절로 쇠였고 불교도들만이 불교 행사를 하는 명절로 맞았다.

4월 초파일에 하는 놀이 가운데 등놀이가 있다. 등놀이는 장대에 여러 가지 등을 매달아 놓고 즐기는 것이었다. 장대 꼭지에는 꿩의 꼬리를 꽂고 흰 비단으로 만든 깃발을 달았으며 그 밑에는 집안 식구의 수만큼 등을 만들어 달았다.

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데 식물을 형상한 것으로는 수박등, 마늘등, 연꽃등, 동물을 형상한 것으로는 용등, 학등, 잉어등, 거북이등, 알등 행성을 형상화 한 것으로는 칠설등, 오행등, 일월등, 물체를 형상한 것으로는 종등, 북등, 누각등, 병등, 향아리등, 방울등 등이 있었다. 그리고 등에는 안녕과 부귀를 염원하는 글자를 썼다.

움직이게 만든 등으로는 영등이 있었다. 등 안에 돌아가는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종이를 오려서 사냥하는 말, 개, 매 등과 쫓기는 범, 송냥이, 사슴, 노루들의 모양을 만들어 붙였다. 바람을 받아 등 안의 기구가 돌아가면 오려서 붙인 종이짐승들이 마치 사냥감으로 쫓기는 것 처럼 보였다. 이날 이러한 등을 재간껏 만들어 집집마다 높이 세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²⁸⁾

(8) 단오

- ① 단오날 교외에서 느낀 바 있어 지음
옛 무덤 새 무덤 서로 이웃하였네
한평생 술 취한 이 그 몇몇이노
오늘 자손들 다투어 술 올리지만
한 방울인들 입술을 적실까보나

(『東國李相國集』 제16권-『국역 동국이상국집』 3권 49쪽)

- ② 단오에 그네뛰는 여자놀이를 보다

27) 배사(杯蛇)의 헛된 생각:아무 것도 아닌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여 괴로워하는 일을 말한다. 진나라 악광(樂廣)이 친구와 술을 마실 때 그 친구가 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보고 마음이 섬뜩하여 그러 인헤 병들었다가, 나중에 그 뱀의 그림자가 벽에 걸린 활의 그림자임을 안 후 병이 절로 나았다 한다. 『書 卷四十三 樂廣傳』 (『국역 동국이상국집』 역주임)

28)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25~26쪽

나라풍속에 단오(端午) 때면 여자가 놀이를 한다
 밀때는 선녀가 달나라로 가는 듯
 돌아올 땐 선녀가 하늘에서 오는 듯
 쳐다보니 뛰어오를 땐 땀방울 울리더니
 금방 펴령이며 되돌아오는구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을 마소
 베 짜는 북처럼 왔다갔다 하네
 아마도 꾀꼬리가 좋은 나무 가릴려고
 날아왔다 날아갔다 하는 것인가

(『東國李相國集』 후제3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233쪽)

단오아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일러오는 민속명절들로서 그것들을 통틀어 3대 명절이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단오를 명절로 쇠기 시작한 것은 오랜 옛날부터이다.

단오날에 사람들은 약으로 쓰기 위하여 쑥과 익모초를 뜯었다. 5월 단오 때의 약초는 약기운이 올라 약효가 좋다고 하였다. 쑥은 쑥떡을 만드는데도 쓰고 남겨두었다가 뜸을 뜨거나 물에 다려먹는 약으로도 썼으며, 부시깃, 모깃불을 피우는 데도 썼다. 고려의 “동동사”에도 5월 5일 아침에 뜯는 쑥은 약효가 좋다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랜 옛날부터 단오날에 쑥을 뜯어 약으로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자료②는 그네 타는 모습을 베짜는 북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또는 꾀꼬리가 왔다갔다하는 모습으로 읊으면서 그 정취가 선녀와 같음을 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안동지역의 아녀자들이 그네를 뛰면서 노래와 닮아 있다.

어허라 군디야 올라가신다
 앞산아 댕겨라 뒷산아 밀어라
 비너꼭지 반뜻반뜻 풀두상투 가다가다
 어허라 군디야 올라가신다(안길할매 구연).

어허라 군디야
 앞산아 댕겨라 뒤산아 밀어라
 송구 꺾어 옆에 쥐고 짚레 꺾어 손에 지고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어허라 군디야(후포택 구연)

고려시대에는 그네뛰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우선 『高麗史』에 보이는 자료이다.

○ 1216년에 고려 문신정권의 최충헌이 “단오에 백정동궁에다 그네를 매고 3일간에 걸쳐서 4품이상의 문무관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다.”³⁰⁾

29)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27~28쪽

30) 『高麗史』 卷第一二九 列傳 第四二 反逆三崔忠獻 條

○ 1387년에 우왕이 “가로를 돌아 다니다가 수창궁으로 가서 임치 등과 함께 그 네뛰기를 하였다”³¹⁾

이규보의 시 이외에 13세기 중엽의 『翰林別曲』에도 그네뛰기 노래가 있다.

당추고 도토리나무에
붉은실로 그네를 맵시다
청소년아 와서 그 그네를 당겨주고 밀어달라
내가 그네뛰려 가려는데 남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하나…

이밖에 중국 『宋史』(권 487 고려전)에도 고려에서 5월 단오에 그네뛰기를 한다고 쓰여있다. 이처럼 단오날에 여성들이 그네를 탔다는 기록문헌이나 시들이 많이 보인다.³²⁾

고려시대 민간에서는 단오날에 석전을 많이 하였다. 이 시기 사람들은 단오날에 거리에 떼를 지어 나와서 좌우로 편을 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맞서서 조약돌과 깨진 기와장을 던지며 싸워 승부를 갈랐다.

“우리 나라 풍속에 5월 5일 단오절에는 무뢰배가 떼를 지어 큰 거리에 모아 두 대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서로 조약돌로 깨어진 기와장을 던지며 공격하면서 혹 몽둥이까지도 사용하여 승부를 가리는데 이것을 석전이라 하였다.”³³⁾

고려에서는 돌팔매지질을 잘하는 사람들로써 자주 ‘척석군’, ‘척투군’이라는 돌팔매부대를 조직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싸움에 동원되어 위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여러 특수부대 가운데 ‘척투꾼’이 있었다.³⁴⁾ 척투군은 군정 가운데서도 석전에 솜씨가 있는 장정들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고려시대 씨름은 일반 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고려 문헌들에는 씨름에 대한 자료가 적지 않다. 충혜왕은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이 직접 내시들과 씨름판을 자주 벌렸다고 한다.³⁵⁾

“왕이 편애하는 신하 배전, 주주 등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무를 일임하고 날마다 내시들과 함께 씨름을 하는 등 상하의 예절이 없이 희롱하였다.”

고려에서는 씨름을 중요한 체력단련의 한 종목으로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민들은 생산활동의 여가와 명절을 계기로 씨름경기를 자주 조직하였다. 고려에서는 씨름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였고, 5월 단오를 장식하는 놀이

“三年端午忠獻設 蓼于栢井洞宮宴文武四品以上三日”

31) 『高麗史』卷第一三六 列傳 第四九 辛禡四 條)

“壽昌宮與林致等爲 蓼獻”

32) 『조선의 민속전통 5』, 100~101쪽

33) 『高麗史』卷第一 三四 列傳卷四十七 辛禡 二 六年 五月 條

“國俗於端午無賴之徒 群聚通衢分左右隊手瓦礫相擊或雜以短 以決勝負謂之石戰”

34) 『高麗史』卷第八日 志第三五 別號諸班 “石投”

35) 『高麗史』卷第三十六 世家 第三十六 忠惠王 條

“三月王機務於嬖臣裴佺朱等日與內豎爲角力戲無上下”

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8월 추석에도 의례히 빠져서는 안되는 경기로 되어 있었다.³⁶⁾

(9) 유두

『高麗史』에 의하면 유두날 강가에 모여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유두음(流頭飲)이라 한다.³⁷⁾

‘병인일에 시어사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와 함께 광진사에 모여서 유두음 놀이를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6월 15일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서 머리를 감음으로써 좋지 못한 일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며 거기에 모여 앉아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유두음이라고 하였다.

김극기의 문집에는 유두의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³⁸⁾ 유두날에는 동쪽 냇가로 나가서 머리를 감고 목욕도 하였다. 동쪽의 강으로 나가는 것은 이날 동쪽은 밝고 양기가 왕성한 방향이라는 민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동국이상국집』에는 유두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러나 위의 두 기록을 통해 고려의 유두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10) 칠월칠석

① 칠월 칠일의 비

은하수 머나먼 저 푸른 노을 밖에서
천상의 신선이 오늘 저녁 모이는데
북소리 끊기고 밤 베를 비운 채
오작교 향해 신선 행차를 재촉하네
만나선 서로 이별의 괴름도 채 못다 나누곤
내일 아침이면 또 헤어질 걸 한탄하기도
두 줄기 눈물 샘처럼 흘러내려
한 바탕 서녘바람에 비를 불어 일으키니
광한궁 선녀 명주 수건 설렁거려
계수나무 그림자 옆에 홀로 잠자다가
신선 남녀 하룻밤 즐겁에 샘나서
월궁을 굳게 닫고 광명을 내놓지 않네
적용은 등이 미끄러워 올라타기 어렵고
청조는 날개가 젖어 날아갈 수 없구려
곧 먼동이 틀 새벽이라 그만 개야 하리
천손의 깨끗한 옷을 더럽힐까 염려되네

(『東國李相國集』 제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1권 94쪽)

② 칠월 칠석(七夕)에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36) 『조선의 민족전통 5』 93쪽

37) 『高麗史』 卷第二十 世家 第二十 明宗 2 乙巳 15年(1185) 6月

“丙寅有侍御史二人與宦官崔東秀會于廣眞寺爲流頭飲 國俗以是月十五日沐髮於東流水 除不祥 因會飲號流頭飲”

38) 『조선의 민족전통 5』 29쪽

은하수 옆으로 비끼고 반달도 밝으니
 이 좋은 밤 한쌍의 견우 직녀 마음껏 즐기리
 여보게 어여쁜 아가씨 하나 불러 주게나
 하늘이나 인간이나 쾌락은 일반이랴오

(『東國李相國集』 제13권-『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235쪽)

③ 칠석에 비를 읊다

칠석날에 비 안오는 일이 적은데
 나는 그 까닭을 모르고 있네
 신령한 배필이 기쁨 이룩하려고 하니
 비의 신은 응당 질투할 것이네
 까마귀와 까치들로 하여금
 젖은 게 무거워 중도에서 떨어지게 하고 싶어서네
 만일 다리가 이룩되지 않는다면
 은하수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이라
 차라리 해엄쳐 건널망정
 이 밤을 헛되게 넘기기는 어려우리라
 명년에 만약 또 비가 온다면
 차마 길이 사모하는 마음만 지니고 있겠는가

(『東國李相國集』 후제4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252쪽)

견우 직녀의 전설의 내용이 고구려 덕흥리 무덤벽화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풍속에서 7월 칠석맞이는 늦어도 5세기초 이전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 향하여 외롭게 떠있는 두 개의 별을 보고 지어낸 견우직녀의 전설을 통해 칠석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칠석 관련 위의 시는 견우, 직녀, 은하수, 오작교, 칠석비 등 구전설화를 기록화한 구체적 작품으로 칠석날 우리 민족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11) 중앙절

① 중구일(重九日)에 손앓이로 나가 놀지 못하다

지난해 상주에서 중구절을 지낼 적에
 병으로 오래 누워 술을 마시지 못하고
 억지로 지팡이 짚고 중을 찾아가
 나의 [南行集]에 중구에 자복당두(資福堂頭)를 찾은 시(詩)가 있다.
 손수 향불 피워 향내를 맡았더라
 가버린 지난해는 뉘우친들 무엇하랴
 올해는 좋은 모임 꼭 가지려 별렀건만
 뉘 알았으랴 올해도 또 손앓이로
 좋은 시주 모임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물 마시고 국화를 씹으니
 속됨을 못 면하고 그저 지낼 뿐이로다
 아내 웃으며 권한 술도 죽히 기쁘거니

어찌 산에 올라 마냥 취해야만 하나
 서생의 기박한 운명 어이 말하라
 해마다 좋은 절기를 병중에 지나는구료
 석양에 울밑 국화를 읊으며 소요하니
 그래도 서풍은 신의 있어 모자에 불어오네³⁹⁾

(『東國李相國集』 제7권-『국역 동국이상국집』 1권 297쪽)

- ② 중양일(重陽日)에 국화를 읊다
 서른 아홉 번째 맞는 이날에도
 찬 꽃은 예같이 노랗거늘
 왜 이 검던 귀밑머리는
 절반이 하얗게 달라졌나

(『東國李相國集』 제1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2권 204쪽)

- ③ 중양절
 젊었을 때는 중양절 만나면
 부지런히 황국을 찾았었네
 좋은 술 나쁜 술 따지지 않고
 이것 띄우니 향내 풍기더라
 지금은 녹봉 좀 넉넉하여
 독안에 좋은 술 담겨 있어도
 내 늙고 게을러서
 정취(情趣)없어 삭막하도다
 국화야 피거나 말거나
 시절 빠른 것만 슬퍼하누나
 손이 오매 굳이 잔 씻어
 한잔 술에도 즐거움 족하구나
 울타리 옆 꽃으로 하여금
 부끄러움 면하게 했네

(『東國李相國集』 제16권-『국역 동국이상국집』 3권 37쪽)

- ④ 중양절(重陽節) 뒤의 국화
 서릿발 차가우니 자태 한결 곱고
 연기 자욱하니 더욱 또렷하구나
 이미 중양절 놓쳤지만
 오늘이나마 너 따라 한 잔 하리라

(『東國李相國集』 제18권-『국역 동국이상국집』 3권 118쪽)

- ⑤ 중구일(重九日)에 무료하던 차 공공상인(空空上人), 노동년(盧同年)이 찾아왔으므로 간소한 주연을 베풀고 국화를 띄우면서 * 느낌이 있어 사(詞)를 한 수를 짓다 낭도사(浪淘沙) *

39) 모자에 불어오네: 환온(桓溫)이 9월 9일에 여러 막료와 함께 용산(龍山)에 올라 잔치할 때 맹가(孟嘉)의 모자가 바람에 날렸으나 흥에 취한 본인은 알지 못하므로 환온이 좌우에 눈짓하여 알리지 말라고 이르고 손성(孫盛)을 시켜 글을 지어 웃겼던 고사이다[晉書 孟嘉傳](『국역 동국이상국집』의 역주임).

꿈만 같기도 하네

(『東國李相國集』 후제5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20쪽)

⑥ 중구일(重九日)에 다시 박추부상공(朴樞府相公)에게 초청받아 술을 마시면서 즉석에서 주필(走筆)로 시를 지어 바치다

(『東國李相國集』 후제6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64쪽)

⑦ 경자년 중구(重九)에

庚子重九

(『東國李相國集』 후제6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64쪽)

자료①에서 ‘어찌 산에 올라 마냥 취해야만 하나’는 세속에서, 9월 9일이 되면 높은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속례를 말한다. 자료⑤⑥의 ‘국화를 띄우면서(泛菊)’ ‘국화를 띄운 때’는 중양절(重陽節)에 국화를 술잔에 띄워 마시는 잔치, 즉 범국회(泛菊會)를 말한다.

9월 9일은 기수인 9 즉 양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양수가 겹친 날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중구를 명절로 맞은 기록은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앞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고려 때 중구날 국화술을 마시며 국화도 감상하는 날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 같다.

『高麗史』에도 중구는 9대 속절 가운데 들어 있다. 이미 고려때 중구를 명절로서 쇠로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원은 매우 오랜 옛날부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⁰⁾

『高麗史』의 중양절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종 기미 10년(1019) 임술일에 이날은 중양절(重陽節)이라 하여 송나라 및 탐라(耽羅), 후수말갈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관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 문종 신해 25년(1071) 9월 경인일에 왕이 이날은 중양(重陽-음력 9월 9일)이라 하여 상춘정에 나가서 태자, 계림후, 평양후, 재상 이유충(異惟忠), 왕무숭(王懋崇) 등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 한 필씩을 주었다.
- 문종 임술 36년(1082) 9월 계미일에 왕이 남방으로 순행하여 정해일에는 봉성현(峯城縣-경기도 과주)에 머물러 중양연(重陽宴)을 배설하고 양부의 관원들과 측근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도중에서 중양절을 만났다(途中遇重陽)”는 표제로 시를 짓게 하였다.
- 숙종 갑신 9년(1104) 기요일에 중구시(重九時)를 짓고 유신들로 하여금 화답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 예종 신묘 6년(1111) 9월 기사일에 중양(9월 9일) 잔치를 배설하였다. 왕이 시를 짓고 시중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화답시를 바치게 하였다.
- 예종 정유 12년(1117) 9월 갑오일에 연흥전에서 중양(重陽-9월 9일) 잔치를 배

40)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편, 37~38쪽

설하였다.

- 명종 갑오 4년(1174) 9월 계사일은 중구(重九-음력 9월 9일) 날이므로 화평궁(和平宮)에서 추밀원(樞密院)과 중방(重房)에게 연회를 배설하여 주었다.
- 명종 경술 20년(1190) 경신일에 이날은 중앙(重陽)이므로 왕이 친히 경령전(景靈殿)에 제향을 치르었다.
- 고종 계축 40년(1253) 갑신일에 이날은 중앙절(重陽節)이므로 왕이 경령전(景靈殿)에 참배하였다.

궁궐에서는 중앙절에 연회를 베풀고, 중구시를 화답시로 짓게 하였고, 왕이 경령전에 참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에서 중앙절의 시가 다른 명절에 비해 가장 많은 이유도 궁궐에서 왕이 중앙연을 베풀고 왕이 시를 짓고 시종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화답시를 바치게 하는데 연유한 것 같다. 그래서 중구는 다양한 풍속보다는 기록이나 시문(時文)들은 많이 있다.

(12) 팔관회

팔관회란 토속 신앙에 불교색채가 가미된, 신라 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시대에 성하게 된 국가적인 행사이다. 개경(開京 : 11월 15일 실시), 서경(西京 : 10월 15일 실시) 두 곳에서 천령(天靈), 명산(名山), 대천(大川) 등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 때 백관은 왕에게 하례를 드리고 외국 상인들도 토속물을 바치고 하례하는 것이 상례였다.

팔관회에 대한 시는 없고 축문이나 축하하는 표가 있을 뿐이다.

① 팔관일(八關日)에 임하여 조진(祖眞) 앞에 대(臺)를 이동하는 사유를 고하는 축문이 예문(禮文)을 강하여 이미 하늘에 계시는 바람 행차를 맞이하였고, 이 기교(機巧)를 빌어 장차 땅을 흔들 우회 바퀴를 굴리려 합니다. 이에 먼저 사유를 고하오니 부디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옵소서

(『東國李相國集』 제40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93쪽)

② 교방(敎坊:기생학교)이 팔관(八關)을 하례하는 표(表)

…조종(祖宗)께서 행하시던 것을 따라 팔관(八關)의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니 온 나라의 환심(歡心)이 같습니다. 기쁨이 천지에 가득하고 경사가 조야에 넘치나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신도(神道)로 가르침을 베풀고 태평으로 성업(成業)을 유지하며, 무위의 정치를 펴시매 자신은 하는 일 없으나 백성은 절로 다스려지고, 생활이 안락하매 백성들은 임금의 덕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모르고 지내이다.

지금 중동(仲冬)에 거룩한 예식을 크게 여니, 상서로운 징조가 마구 이르러 자라는 산을 이고 거북은 그림을 그렸으며, 온갖 악기를 다 벌이니 용은 피리를 불고 범은 비파를 타나이다.

첩(妾) 등은 궁중에 처한 몸으로 뜰에 나아가 구주(九奏)의 소리를 들으니, 균천(鈞天)의 음악을 꿈에 듣는 듯하옵니다. 만수무장을 빌어올리되 송악(嵩岳)의 환호를 간절히 기약하나이다…

(『東國李相國集』 후제1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224쪽)

『高麗史』 기록을 살펴보면 ‘주로 11월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로 갔다’는 기록

이 많이 나와 있다. 9개 속절에 속하는 팔관회는 이 시기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미 6세기에 신라에서 팔관연회, 팔관도장 등을 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 팔관연회 : 진흥왕 33년 겨울 10월 20일에 전사한 사졸을 위하여 팔관연회를 바깥 절에 배설하였다가 7일만에 파하였다.⁴¹⁾
- 팔관도장⁴²⁾

신라에서 있는 팔관행사는 순수 불교의식이었다면 고려의 팔관회는 하늘의 신과 5악명산의 신, 대천의 용신에게 제를 지내는 의례행사였다.

고려의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었다. 고려는 저들이 계승하려는 나라 고구려의 옛 수도에서 고구려가 하던 동맹행사를 본받아 팔관회를 하였던 것이다. 고려 때 개경에서의 팔관회는 11월에 하였는데 서경에서의 팔관회는 고구려와 같이 10월에 진행하였던 것이다.

서금의 『高麗圖經』에서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란 모임을 가졌으며 지금(고려)은 10월 보름에 소찬을 갖추어 놓는데 말하기를 팔관제라고 한다”라고 썼다.⁴³⁾ 그것은 다음으로 팔관회가 동맹의 행사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팔관회에서는 왕실의 안녕과 농사가 잘 될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가무백회 등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왕실귀족과 문무관료만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일반 사람들도 참가하였다.

팔관회에는 불교와 도교적인 색채가 혼합되어 있으나 산천신에게 제를 지낸 것으로 보아 불교행사라기 보다 동맹에서 진행하던 산천신에게 제를 지낸 ‘수확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등불춤’은 고려 때 성행한 연등회 팔관회에서 벌린 등불놀이에서 유래된 민속무용이다. 연등회, 팔관회는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된 민속행사들으로써 이날에는 온 나라의 집집마다 등불을 켜놓고 그 아래서 제천의식을 지내고 춤과 노래로써 밤을 새우는 등불놀이가 진행되었다. ‘등불춤’은 바로 이러한 등불놀이에서 흥겹게 추어진 춤이었다. 등불놀이는 조선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등불춤은 ‘초롱불춤’으로 발전하였다.⁴⁴⁾

(13) 동지

① 동지력(冬至曆)을 보고

바야흐로 지금은 동짓날 아침
차례로 늘어선 내년 날짜를 벌써 보았네
세월을 미리 알아 무슨 소용 있는가
이 몸이 죽을 때도 모르는 것을

(『東國李相國集』 후제2권 - 『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168쪽)

② 동지에 새 달력을 이 학사 백전에게 부치다

41)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條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延會於外寺七日罷

42) 『三國遺事』 卷三 답상 황룡사 9층탑 條

43) 『고려도경』 卷十七 사우 條

44) 『조선의 민속전통 6』 민속음악과 무용,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69쪽

기쁘게도 내년의 달력을 얻었으니
 취미 같은 저 사람에게도 보내 줘야지
 나와 이학사가 모두 벼슬을 그만두었다.
 그대에게 갑년이
 몇 만 몇 천 번이라도 돌아오기 바라서네
 그대 집에도 없을 것은 아니로되
 이것을 부치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바라건데 해마다 이를 바침으로써
 공의 수(壽) 늘어감을 보려 함일세

(『동국이상국집』 후제2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173쪽)

③ 박(朴), 정(丁) 두 학사에게 동지력(冬至曆) 몇 권씩을 보내면서 역서 뒤에 한 절(絶)씩 적다

(『동국이상국집』 후제8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123쪽)

④ 하 낭중(河郎中)에게 동지력을 보내면서

(『東國李相國集』 후제8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123쪽)

동지는 기록상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보인다. 고려 문인들은 팔죽을 놓고 여러 편의 시를 읊었고⁴⁵⁾ 『高麗史』에는 9대 속절의 하나로 동지가 들어 있으며⁴⁶⁾ 동지날에 궁중에서 대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⁴⁷⁾

자료①~④는 주로 동지때 새 달력을 받거나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는 동짓날 관상감에서 달력을 만들어 모든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을 동지력이라 불렀다.

이상의 자료들은 고려시대에 동지를 민속명절로서 널리 쇠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그 앞선 시기 기록에는 동지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고려 이전에 이미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24절기로 제정되어 있었던 만큼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도 오래 전부터 민속명절로 쇠어 왔을 것이다.⁴⁸⁾

(14) 선달

① 선달 그믐밤 광릉(匡陵)에서 숙직하면서 짓다

(『東國李相國集』 제10권-『국역 동국이상국집』 제2권 130쪽)

45) 『익제집』 익제난고 2, 『목은집』 권10, 권 20, 권27

46) 『高麗史』 권제84 형법지 명례 금형

47) 『高麗史』 卷第三 世家 第三 成宗 二年 條

“十一月 甲子日南至王御元和殿受朝賀宴群臣於思賢殿(11월 갑자일이 동지날이었다. 왕이 원화전에 나와서 축하를 받고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사헌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48) 『조선의 전통민속5』 39쪽

② 수세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 꽃음이 얼마나 괴상한가
뜰 가운데 폭죽 소리 시그러운들 어이하리
벽온단으로 온역(沃疫) 피함도 헛말이지만
술마시기 위해 짐짓 사양하지 앓았노라

(『東國李相國集』 후제8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123쪽)

③ 태묘의 납향(臘享) 때 겸하여 생선을 천신하는 제사축문

납제에 만물을 모아서 삼가 향기로운 제수를 진설하는데, 물에 많은 생선이 있으므로
겸하여 별미의 천신을 갖추었나이다. 바라옵건데 총명의 흠향을 더하사 이 효
도의 정성에 응하소서

(『東國李相國集』 제40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93쪽)

④ 이시랑(李侍郎)이 진양공(晉陽公)에게 드린 여동시(女童詩)를 차운하여 진양공에게
드리다

타고를 마구 두들기니 선달의 나례(儺禮)11) 같으며 鼓爭 勝歲儺별

(『東國李相國集』 후제8권-『국역 동국이상국집』 6권 130쪽)

자료①은 작자가 선달 그믐날 광릉에서 숙직을 하면서 보내는 심경을 읊고 있고, 자
료②는 그야말로 민속지적(民俗誌的) 시(詩)이다. 수세는 선달 그믐날 밤. 궁중에서는
폭죽 소리와 만세 소리가 가득하고,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화로가에 둘러
앉아 밤을 지새우는 것을 수세라고 한다.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 꽃음은 정월 초하룻날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를 꽃아 재앙을 물리친다는 풍속이다. 벽온단은 선달 그믐날 밤
벽온단을 술에 타서 마시면 다음해 일 년동안 온역(沃疫)을 피한다는 전설이 있다.

자료③은 태묘(太廟-임금의 조상을 제 지내는 사당)에 정상적으로 제사지내는 날로서
는 한식(寒食)과 납일(臘日)인데 납향(臘享-동지 ‘冬至’ 뒤의 셋째 술일 ‘戌日’에 하는
제사)에는 생선도 겸해 드린다는 『高麗史』의 역사기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자료④는 고려 정종(靖宗) 이후 음력 선달 그믐날밤에 궁중에서 악귀를 쫓던 나례의
식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는 고려의 선달 그믐날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한 민속지보다 더 구체적이
다.

(15) 윤달

① 태묘에 윤달 보름을 고하는 축문

양이 남아 윤달이 되고 또 바야흐로 월망(月望)의 때를 당한지라, 행료(行潦)를 떠와
제수를 만들고 이에 시사(詩思)의 제사를 받드나이다. 바라옵건데 밝은 허락을 내리사
이 효성(孝誠)에 부응하소서

(『東國李相國集』 제40권-『국역 동국이상국집』 5권 93쪽)

② 태묘에 윤달 보름을 고하는 제사축문

복두성 자루가 비스듬히 가리키니 때는 바야흐로 윤달이 되었고, 월백(月魄)이 이미
가득찼으니 감히 보름을 고하는 예(禮)를 빠뜨리겠습니까? 바로옵건데 변변치 못한 차
림을 흠향하시와, 조금이나마 이 정서에 부응하소서.

1태양년의 길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달의 차고 기움이 너무나 뚜렷해서 달을 기준으로 일찍부터 태음력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계절을 맞출 수가 없어서 윤달을 넣게 되었다. 윤달에 대한 특별한 풍속은 소개되지 않았다.

IV. 결 론

지금까지 『동국이상국집』을 중심으로 고려의 속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정리해 보았다.

고려시기는 연등회, 유두, 팔관회 등을 3대 민속명절로 삼았다는 말도 있으나 9개 속절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곧 민속명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연등회와 팔관회는 민속명절이라기 보다 관 중심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밖에 9개 속절에 속하는 명절들은 모두 삼국시기부터 전하여오는 민속명절이었다. 고려시기의 민속명절에서 일반적인 특성은 명절행사에 불교적 색채가 짙은 것이다. 고려시기 큰 명절로 기념한 팔관회, 연등회 등은 그 내용에서 권농이나 오락적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기는 하나 이름 자체부터 불교적인 것이었으며 의례내용에서도 불교행사가 적지 않았다. 불교적 색채의 이름을 가진 팔관회, 연등회 등과 같은 민속 명절을 기념한 것은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장려해 왔기 때문이었다. 조선조에 와서 이러한 명절들이 없어진 것은 조선의 억불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⁴⁹⁾

예나 지금이나 명절의 분위기는 그날 먹을 수 있는 시절음식, 새옷을 입을 수 있는 명절옷, 일년 중 이 날만 놀 수 있는 민속놀이가 한데 어우러져 풍성해진다. 앞의 자료에서 몇가지의 민속놀이는 알 수 있으나 고려의 전반적인 민속놀이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기에 오면 놀이의 종목과 내용이 가일층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고려의 무술연마놀이로서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 들팔매놀이, 수박희 등이 있었으며 체력단련 놀이로서는 격구, 타구, 포구, 기구, 척초희(풍물치던지기), 씨름, 그네, 수희(물놀이), 대말타기, 연떡우기, 달리기, 뽕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민속놀이의 대부분은 고려 이전시기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온 민속놀이였다. 그 가운데서 고려의 문헌에 가장 많이 보이는 민속놀이는 격구, 말타기, 활쏘기, 그네 등이다. 앞선 시대의 기록에 보이지 않던 민속놀이는 타구, 포구, 기구, 척초희, 수희 등이다.⁵⁰⁾ 아마 이러한 각종 민속놀이가 각 명절에 어울리게 늘어났다.

이 글은 많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자료에 대한 섭렵이 부족하고 다만 몇 사례만을 가지고 고려 속절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과, 자료의 내용 소개에 급급하다보니 본격적인 각 명절의 풍속과 의미,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우선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러나 고전문학인 『동국이상국집』을 주 텍스트를 하고, 『高麗史』를 비롯한 각종 역사자료, 현재까지 전승되는 세시풍속의 민속자료 등을 학제적, 통합적 시각에서 자료를 정리하고자 했던 이 작업에 대해 필자는 시대속 연구를 통한 민중생활사의 재구축이라는 명제에서 새로운 작은 시도라고 자위한다.

49)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9쪽

50) 『조선의 민속전통 5』 민속명절과 놀이 57쪽